

거리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교제하지 아니함이라

(삿18:7-11절)

라이스에 살았던 시돈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중심임을 보았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도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는 눈이 근시안적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이 화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평안하고 만족하게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보낸 5명의 스파이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온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라이스에 살았던 시돈 사람들처럼 한가하고 평안하게 괴로움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과 문제들이 찾아 올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항하여 싸울 어떠한 준비들이 되어 있습니까?

라이스의 땅에 살고 있는 시돈 사람들처럼 한가하고 평안하고 괴로움이 없다고 대비하지 아니하고 산다면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망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스에 살아갔던 시돈 사람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언제 닥칠런지 모를 적의 공격에 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다른 사람과는 관계를 하지 않았기에 긴급한 순간이 왔을 때 도움을 받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들의 성읍은 불에 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 그리하여 넓은 길, 화려한 길, 비옥한 땅을 택하여 사는 것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한가하고 평안하고 괴로움이 없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라이스에 살고 있었던 시돈 사람들은 다 칼에 맞아 죽고 성읍들은 불 타 버렸습니다.

라이스에 살던 시돈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한가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권위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같이 행하였던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사귀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 날에 도울 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멀고 상종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큰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수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